



## **사업자와 고용인에게 불리한 필수 E-인증 (E-Verify)!**

E-Verify(E-인증)은 새로 고용되는 직원들의 취업신분이 합법적인지를 미사회보장국의 기록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하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인증의 원래 취지는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으며, 현재 美연방 정부는 규모가 큰 연방 정부 계약자나 도급업자들에게만 E-인증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지아주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풀타임 직원이 10명이상인 모든 고용주들이 E-인증(필수 E-인증)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필수 E-인증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당한 돈 낭비와 시간 낭비를 하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무료지만,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컴퓨터 장비를 마련하는 것과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할애되는 시간은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을 E-인증에 조회한 결과, “취업 불허가일 가능성 있음” 이라는 경고가 뜰 경우, 사업자는 그 고용인의 신분이 승인 날 때까지 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검토 절차 기간 동안, 사업자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잃게 됩니다. 사업자는 고용인의 신분 검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며, 조회한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그 고용인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고용할 경우,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는 정부의 간섭을 원치 않습니다.** 이민단속은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를 믿으며 오로지 동등한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이미 많은 소규모 사업들이 요즘 어려운 경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사업가들은 이민단속반이 되기 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고 돈 버는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 **E-인증은 오류가 많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E-인증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불법노동자의 무려 54%가 E-인증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E-인증에서 “불법 근로자”로 조회될 확률이 다른 인증보다 높습니다.** 데이터 베이스의 수많은 오류와 결함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취업신분이지만 외국 태생인 고용인은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보다 “취업 불허가”로 잘못 인식될 확률이 무려 20배나 됩니다.** 즉, 필수 E-인증 시스템 하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고용인들이 “불법자”로 낙인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이 취업할 때는 지연이 생기며, 더 나아가 고용주들이 채용에 있어서 아시아계 고용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 **E-인증은 불법노동자의 감소가 아닌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E-인증 때문에 고용인들이 암시장에서 일할 경우, 앞으로 10년에 걸쳐 **173억 달러(\$)** 연방 예산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 손실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그 결과 아시아계 고용인들에 대한 보호 또한 감소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 [www.AdvancingJustice-Atlanta.org](http://www.AdvancingJustice-Atlanta.org)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